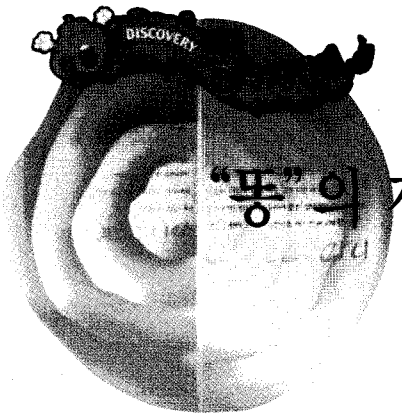


"똥"의 재발견 특별전시회 개최

그 동안 천대받던 똥을 주제로 21세기의 화두인 환경, 인간의 건강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글 · 사진_편집부

《 기간 : 2001년 4월 1일~8월 31일
《 규모 : 400여평
《 장소 : 서울랜드 이벤트홀

특히 이번 전시회는 똥은 더 이상 더럽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원과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똥의 역할과 관람객들이 좀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똥을 지칭하는 "응가" 를 이번 전시회의 캐릭터로 삼아 "똥"이 주었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전시장은 초원에 사는 많은 동물들의 똥을 고형화하여 건조시켰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파리체험등 총 7개의 테마를 갖고 주제에 맞게 색다른 분위기도 연출 되었다.

제1장, 똥으로의 초대

도입부분으로 이번 전시회의 취지와 똥의 정의 및 구성요소 그리고 똥에 대한 기원 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 하고 있다.
보통 70%정도가 수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분함량에 따라서 설사, 물똥, 변 등 다양한 명칭과 똥의 어원에 대한 다양 하고 독특한 해석이 재미있다.

제2장, 동물의 똥(사파리체험)

우리가 평소에 보지못한 육식과 채식동물 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똥의 형태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달라지는 사실을 동물모형의 엉덩이를 열어서 직접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의 후원으로 제작된 실제 동물 똥으로 냄새는 전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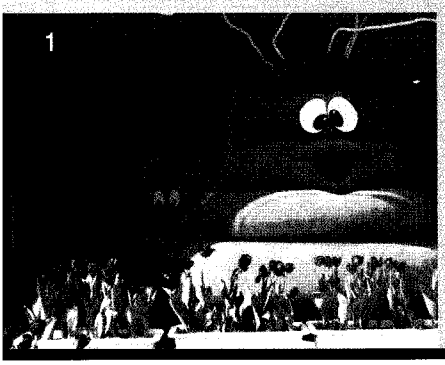
제3장, 똥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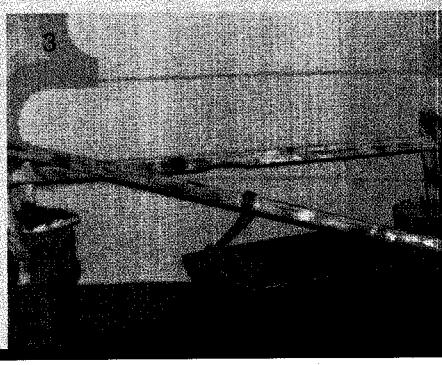
사파리 체험을 하고나면 호랑이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관람객들이 직접 호랑이의 몸(모형) 속을 탐험하면서 몸 속의 소화과정과 음식물이 똥으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호랑이의 몸 안으로 들어 가서 마치 피노키오가 고래의 몸 속을 탐험하듯 입안-식도-큰창자-항문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히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쓸개즙과 섞이면서 똥이 누런색으로 변하게 되고 마지막 항문부분에서는 감각신경자극을 통하여 변을 보고싶은 욕구를 전달하고 조절하는 배변반사를 배우게 된다.

제4장, 똥과 환경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자연순화 관정을 느끼고 재활용 방안과

서울랜드의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





1.똥 캐릭터 '응가'　2.각 국의 똥에 대한 어원(語原)　3.똥의 순환 중에서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운반도구'

하수처리 되는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커다란 똥 구조물이 설치되어 일년동안 인간이 배설한 똥의 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특수저울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말똥과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도 있고 지렁이가 만든 분변토로 똥의 재활용 방법(비료만들기)을 보여주며 누에똥에 대한 약효와 쓰임새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5장, 똥의 순환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사슬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과 아이들의 생물 학습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도면과 그림, 사진 등 그래픽으로 육상동물과 해상생물에 대해 알기쉽게 표현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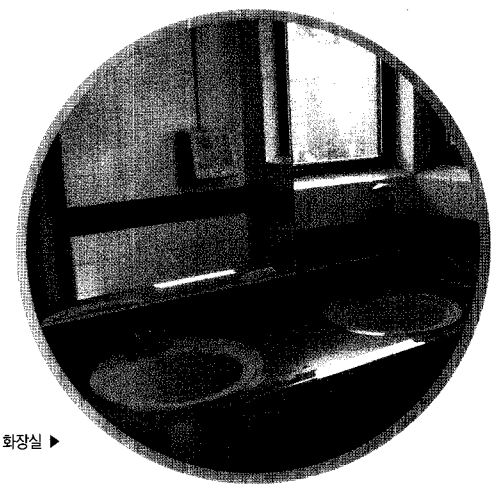
제6장, 똥과 문화

화장실에서 시작된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대변 때문에 시작된 중일전쟁등 재미있는 역사속의 똥 이야기와 똥꿈 체험관, 똥에 관련된 속담과 꿈풀이등 똥에 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7장, 똥과의 아우름(event zone)

단지 눈으로만 보는 전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똥과 함께하는 이벤트 공간이 꾸며졌다.
똥캐릭터 귀여운 응가와 사진찍기, 똥으로 보는 건강상태 그리고 똥으로 운세를 점쳐보는 다양한 이벤트와 엽기적인 똥 캐릭터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동안 점잖은 장소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똥"을 주제로한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화장실 관련자료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배어있지만 서울랜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청소상태는 양호하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시설이 낙후되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람객용 화장실 ▶